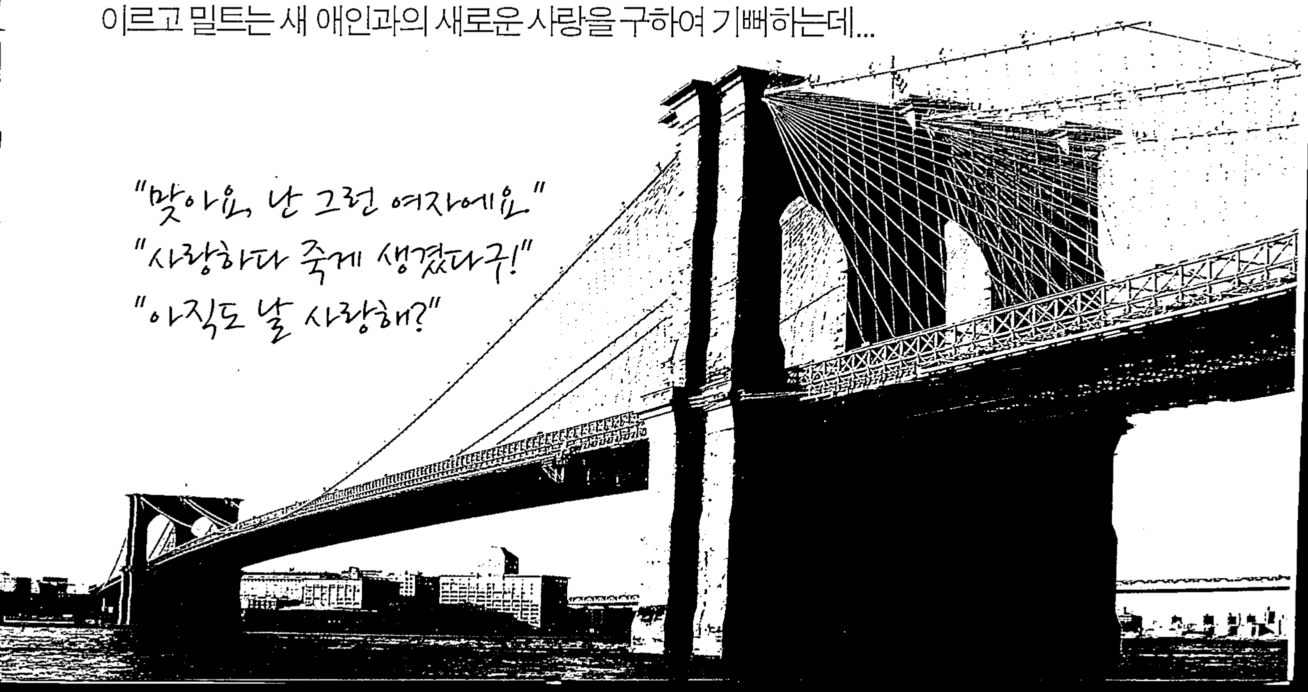
Synopsis

정체성을 잃어버린 괴물 같은 <사랑>

고교시절 절친했던 두 친구 밀트와 해리는 15년 만에 우연히
길모퉁이에서 만나게 된다.
두 친구에겐 15년이란 세월 동안 많은 변화가 생겼다.

밀트는 대학입시에 실패한 후 약삭빠른 처세와 현실에 집착하면서
아파트 투기사업을 벌여 큰돈을 벌었고, 해리는 이상을 찾으며 현실과의
부적응으로 자포자기적인 생을 살아간다.

마침 해리가 자살하려는 순간 밀트를 만나게 되고 밀트는 해리에게 사랑을
함으로써 새 삶을 시작할 것을 권유한다.
밀트는 명문대학 출신의 지성과 미모를 갖춘 부인 엘렌과의 행복하지 못한
결혼생활을 청산하고 새 애인과의 결혼을 위해 계획적으로 엘렌을 해리에게
소개한다. 엘렌과 해리는 밀트의 뜻대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결혼에까지
이르고 밀트는 새 애인과의 새로운 사랑을 구하여 기뻐하는데...